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판공성사 (고백성사) 안내

- 성탄 판공성사를 보지 못한 교우들은 주님공현대축일까지 꼭 성사를 보시고, 판공성사 확인표에 성함, 세례명, 구역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일 (12월 28일)부터 주일학교 방학이 시작됩니다. 다음 학기 개학은 2009년 2월 1일입니다.

◆ 12월 병자봉성체는 넷째 주일 (12월 2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구역장 교육

- 일시: 12월 28일 주일미사 후
- 장소: Holy Family Church (Parish Center)

◆ 2009년 월간 매일미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광광주 예로니모 형제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친교 준비 봉사자

- 12월 28일: 김영천
- 1월 4일: 박석현

◆ 12월 친교 후 정리 봉사: 김재준 구역

◆ 매월 둘째 수요일,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홀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시-1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31.00
성탄미사헌금	\$613.00
교 무 금	\$720.00

- 교 무 금: 홍그루 서경환 윤형석 유은주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경축이동 December 28, 2008



<주님 탄생 예고>

프라 안젤리코 (1399-1455), 템페라, 프라도 미술관, 마드리드, 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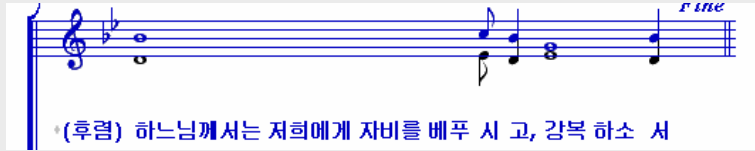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다. 여드레가 차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민수기 6,22-27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화답송



제 2 독서 갈라티아서 4,4-7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가지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도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2,16-21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다. 여드레가 차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330단	2명	3,260단	23명
이호영	105단	1명	14,945단	91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435단	3명	2/22/04-12/14/08 (252주)	

☞ 총누계: 206,915단 12,715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12월 28일	1월 4일
해설자	곽광주	고상식
독서/봉헌	김효임 구역	정하상 구역
보편지향 기도	십자가의 모후	평화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5 ♫ 봉헌: 217
♫ 성체: 154 171 ♫ 파견: 249

생명의 말씀

가정, 사랑 가득한 하느님 나라

박성철 미카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올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교회는 성가정 축일을 지냅니다. 한 해의 고트머리에서 가정의 참된 가치를 생각해 보고 가족과 함께 감사의 정을 나누며 가정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정은 인생의 보금자리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 생명의 원천이 되는 곳, 가족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난 성탄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정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가정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세상에 오셨고 나자렛의 한 가정을 통하여 성장해 가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가정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정의 깊은 의미가 자리합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란 책에서 노교수는 가정의 소중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가족이 없다면 사람들이 딛고 설 바탕과 안전한 버팀대가 없게 됩니다... 가족의 뒷받침과 사랑과 염려가 없으면 많은 걸 가졌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天主是愛 천주시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날개 부러진 새와 같습니다.”

모리 교수의 말을 계속 들어봅니다. “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지켜봐 주는 누군가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봐 주고 있는 가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안정감’입니다. 가족 말고는 그 무엇도, 돈도 명예도 일도 이 안정감을 줄 순 없습니다.”

나자렛의 어린 예수님은 당신을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들로 정신적인 안정감을 갖고 나날이 성장해 가셨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가정생활을 해 가셨을 것으로 하는 진정한 성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가정 역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가정이고 싶습니다.

서로 오래 참아 주고 성내지 않으며
모든 것을 덮어 주는 곳!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내는 곳!
사랑이 가실 줄 모르는 곳!(1코린 13장)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곳!

그런 아름다운 성가정 이루어 가시길 기원합니다.